

##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가이드라인 제안

### Proposed Guidelines for Standardization of Novice Driving Signs

최재희<sup>1</sup>, 김승인<sup>2\*</sup>

Jaehye Choi<sup>1</sup>, Seung In Kim<sup>2\*</sup>

#### 요약

이 연구는 사인디자인 측면에서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를 사용하는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 후 국내 표지 규격화 시 고려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국내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초보운전 표지 사용으로 혼잡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추진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문헌 연구를 통해 운전자 표지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사인디자인 구성 요소 중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요소를 기반으로 8개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초보운전 표지의 디자인적 특징을 ‘문자 강조형’, ‘색상 강조형’, ‘형태 강조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도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도로 위 빠른 인지를 위해 문자나 형태를 상징 기호화하고 색상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크기와 부착 위치를 규정하여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정돈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본 연구는 초보운전 표지를 디자인 요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디자인을 논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사용자 경험, 초보운전, 사인디자인, 교통 환경, 자동차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using standardized novice driving signs in terms of sign design and proposing design guidelines to be considered when standardizing domestic novice driving signs. Currently,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in Korea, creating a crowded road environment by indiscriminate use of novice driving signs. Due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opinions on the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of novice driving signs were increasi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river sign design was investigated, and eight cases were studied based on four elements of character, color, shape, and attachment among the components of the sign design. Through thi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novice driving sign were classified into ‘character-emphasized’, ‘color-emphasized’, and ‘form-emphasized’, and the following guidelin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derived characteristics. For fast recognition on the road, characters or forms are symbolized and colors are minimized. It also defines the appropriate size and location of attachment to deliver an organized image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driver's view.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novice driving signs based on design elements,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practical data to help discuss the standardized design

1 Master of Design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IDAS,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choiwo2@naver.com

2 Prof. of Digital Media Design, Hongik University, IDAS, Seoul, Korea [Professor]

e-mail: r2d2kim@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February 15, 2025), Review Result(1st: March 3, 2025), Accepted(April 11, 2025), Published(April 30,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of novice driving signs in the future.

Keyword : User Experience, Novice Driver, Sign Design, Traffic Environment, Automobile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보운전자는 시야 탐색 범위가 좁아 돌발 상황이 많은 도로 환경에서 사고율이 높은 시기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사고 통계에 따르면 경력운전자보다 초보운전자의 사망·사고율이 2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하여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고, 주위 운전자들은 부착된 표지를 보고 배려와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게 된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2010년부터 21세 미만의 임시면허 소지자는 정식 면허 취득 전까지 법정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한 ‘데칼법’을 시행했으며, 데칼법 시행 이후 2년간 사고율이 9.5%가 감소했다 [3]. 앞선 사례에 따르면 실제 초보운전 표지 부착 효과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표지의 규격 및 부착 위치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해외 운전자들도 표준화된 표지가 초보운전 차량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4]. 또한 규격화된 디자인의 운전자 표지 활용은 정보전달에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사용성 평가에서도 규격화된 표지의 사용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지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

반면 우리나라는 1995년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초보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위협 운전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도입 4년 만인 1999년 의무화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초보운전 표지에 대한 규격, 디자인 및 부착 여부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 [7]. 하지만 개성을 강조한 다양한 디자인의 표지가 많아지면서 [그림 1]과 같이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어투의 무분별한 표지 사용 또한 늘어났다. 이러한 표지는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직관적인 인지가 어려워, 문구나 크기 등을 규격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7].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화된 초보운전 표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향후 국내 초보운전 표지 디자인 규격화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국내 초보운전 표지 현황

[Fig. 1] Domestic Current Status of Novice Driving Sign in Domestic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1차 문헌 연구를 통해 운전자 표지 디자인 측면에서 사인디자인에 대한 개념적 특성과 사인디자인 구성 요소를 이론적 배경으로 알아보고 운전자 표지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8가지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여 디자인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인디자인의 이해

사인(Sign)은 사전적 정의로 ‘기호’를 의미하며 시지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8]. 인간의 지각은 약 80% 이상 시각으로 이루어지며 시지각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문자, 도형, 형상, 색채 등 비주얼 언어인 기호체계로 구체화한다 [9].

사인의 목적은 기능적 측면, 심미적 측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능적 측면은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자의 서체, 크기, 색상 등을 고려해 사용자에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인시스템의 조형 요소를 통일시켜 사용자가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연속적인 정보 제공과 정보의 단순화로 사용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없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심미적 측면으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이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

미성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인디자인의 목적과 이에 따른 요소와 속성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10].

[표 1] 사인디자인의 목적과 요소  
 [Table 1] Purpose and Elements of Sign Design

분야	목적	요소	속성
사인디자인	기능적 측면	가독성	문자의 서체, 크기, 색상 등 활용
		통일성	조형 요소의 통일
		연속성	적절한 설치 위치
		단순성	효율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단순화
	심미적 측면	신뢰성	사용자에게 안전함 제공
		심미성	주변 환경과 조화

## 2.2 사인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운전자 표지

‘운전자 표지’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소통의 제약이 많은 도로 위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시각 정보를 통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7]. 또한 운전자 표지는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적이며 짧은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정보에 지각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이 중요하다. 하지만 초보운전을 픽토그램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사용자의 평균 반응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오반응률도 높은 편으로 추상적 단어인 ‘초보’는 사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라 구체적인 시각화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11]. 사인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서 정보디자인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정보디자인은 주로 시각에 의해 전달되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색상, 타이포, 레이아웃 등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시각적 질서를 구축한다 [12].

## 2.3 사인디자인 구성요소

### 2.3.1 문자

문자는 상호 간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한 시각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이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로서 사용자의 판독성과 가독성에 집중한다. 판독성은 문자의 크기, 두께, 문자색과 배경색의 대비 등에 의해 결정되며 많은 수의 문자를 배열하면 사인의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문자의 배치, 구성, 간격 조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표지의 유형별로 관찰자와의 가시거리를 검토하여 문자의 크기, 굵기, 위치, 길이 등을 배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독성은 문자 집단으로서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기능적 의미 전달이 원활하도록 종횡비, 획폭, 문자와 배경에 대한 최대

비, 문자와 숫자 속 공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해야 한다. 사인에서 문자의 선택은 가독성뿐만 아니라 특정 환경 내 시각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므로 적당한 문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 2.3.2 색채

색채는 인간 심리에서 다양한 연상 작용을 한다. 색채의 단독 사용은 사인으로서의 명확한 전달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요소와 함께 사용될 때 의미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색채를 인지할 때 연상성, 상징화, 기억화, 기호성의 색채이미지를 형성하여 상징 작용 및 심미적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색채는 사인에 사용된 모든 색상이며, 재료 및 빛의 성질로 인해 표현된다. 적절한 색채 자극은 광고 효과를 높이고, 이미지와 부합하는 색채 사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야 하며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하거나 지나친 시각적 자극은 자제해야 한다. 사인디자인에서는 가시성과 주목성을 고려하면 시각적 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

### 2.3.3 형태

형태는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에 의해 시각적 연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사인의 미적 요소와 관계된다. 언어나 문자는 말의 시간적, 연속적 배열로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지만 형태는 원시적, 직관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요소이다. 과한 크기나 강렬한 색채를 사용한 일부 상업용 사인류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다. 형태는 그래픽 심볼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그림, 바탕과 선, 면 등을 포함해 전체의 형태가 균형감을 느끼고 통합화된 시각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3.4 재료

설치 위치나 부착 방법에 따라 소재를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옥외에 설치되는 사인의 경우 기후 변화에도 견고하고 쉽게 변색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실내에 설치되는 사인은 재료의 중요성보다 질감이나 형태에 표현된 정보가 어떻게 보이고 전달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재료는 외형을 결정짓는 판재와 틀재, 내용을 표현하는 의장재로 나뉘지며,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될 재료를 미리 결정하고,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

### 2.3.5 조명

조명은 사인의 문자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인은 가독성을 위해 낮에는 태양광 정도의 밝기여야 하나, 밤에는 너무 밝을 시 오히려 방해된다. 사인 설치 시엔 외부 빛이 너무 밝거나 내부 조명이 영향이 큰 장소는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인 주위 넓은 테두리를 두르는 등 빛의 강도를 저하할 방법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인보드 표면의 반사광도 사인의 가독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2.3.6 부착

사인은 관찰자가 명확히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사람의 가시 능력, 시야각,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읽는 위치로부터 사람과 사인의 각도, 거리, 크기, 높이 등을 결정한다. 사인의 유형에 맞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통일성 있게 부착하고,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관찰자의 눈높이보다 조금 높게 부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조명 및 반사광으로 인해 판독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목적지의 방향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 공간과 대응 시키기 쉽도록 관찰자의 시야와 사인의 방향축이 일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사인디자인의 구성요소는 문자, 색채, 형태, 재료, 조명, 부착 6가지로 정의했다 [10]. 위에 설명한 구성요소별 특징은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운전자 표지 디자인은 도로 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면 가독성과 인지성이 적합한 요소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6가지 구성 요소 중 재료, 조명을 제외한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표 2] 사인디자인의 구성요소

[Table 2] Components of Sign Design

구성요소	특징
문자	판별성과 가독성 효과, 잠재 성향 자극
색채	이미지의 상징적 언어, 감성 자극
형태	정보전달체로서 시지각에 영향
재료	다양한 이미지 표출 가능, 새로운 분위기 창출
조명	사인의 장식적, 기능적, 심리적 역할 가능
부착	판독 가능한 위치에 부착, 기술적 문제 고려

## 3. 사례 연구

### 3.1 국내 초보운전 표지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보운전자 표지에 제시된 기준은 [그림 2]와 같이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 ‘글씨는 청색, 걸 테두리 선은 녹색으로 한다.’, ‘뒷면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한다.’라고 설명하며 색채와 부착 위치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자는 ‘초보운전’ 단어 그대로 사용하여 표지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10cm의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있다.



[그림 2] 국내 초보운전 표지 (1995년 규정)  
[Fig. 2] Domestic Novice Driving Sign (Regulations 1995)

### 3.2 해외 초보운전 표지

#### 3.2.1 일본

1972년 도입된 일본의 초보운전 표지는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의 운전자가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초심자를 의미하는 새싹 형태로 ‘와카바마크(若葉マーク)’라고 불린다. 문자는 사용하지 않으며 새싹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일본 내에서는 초보운전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색상은 노란색과 초록색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테두리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고명도의 색상을 또렷하게 인지할 수 있다. 표지의 부착 위치도 규정되어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0.4m 이상 1.2m 이하의 위치에 좌우 상관없이 전방과 후방으로부터 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자세하고 있으며,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일본의 초보운전 표지 부착 위치  
[Fig. 3] Regulations for Location of Novice Driving Sign in Japan

#### 3.2.2 미국

‘데칼법(Decal law, Kyleigh's Law)’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1세 미만 운전자는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있는 번호판의 왼쪽 상단에 빨간색 데칼 표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야 한다. 문자나 기호 등의 디자인 없이 단순한 사각형 형태의 반사판 재질로 만들어진 빨간 색상 데칼은 탈부착이 가능한 3M Dual Lock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가로 1인치 정도로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본 연구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데칼법 시행 후 사고율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3.2.3 러시아

러시아의 초보운전 표지는 가로, 세로 15cm의 노란색 정사각형 표지에 검정 색상의 느낌표 기호를 사용한다. 단순한 형태와 색상으로 주목성이 높은 편이다. 2009년 도입되어 운전면허 취득 후 2년간 차량 뒷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 3.2.4 프랑스

프랑스의 초보운전 법정 식별 기호 ‘Disque A’는 수습(Apprenti)의 맨 앞 자 ‘A’를 기호로 사용한다. 흰색 색상의 직경 150mm 정원형 판에 문자는 볼드한 고딕체와 빨간 색상을 사용하여 기호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강조 되어있다. 프랑스는 1994년부터 표지를 사용했으며 면허 취득 후 3년의 수습 기간에 차량 후방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지 부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2.5 영국

영국은 정식 운전면허 취득 전, 임시면허 기간에 법정 인식표 ‘L-Plate’를 부착해야 한다. 운전 실습 시 차량의 전면과 후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규정된 규격의 ‘L’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거나 올바른 규격의 표지가 아닐 경우 정식 면허 취득 시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한 부착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차량 앞 유리나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차량 하단 범퍼는 피해야 한다. 표지 문자는 학습자(Learner)의 앞 글자 ‘L’을 기호로 사용하며 가로, 세로 17.8cm 흰색 정사각형의 바탕에 문자는 빨간 색상의 볼드 고딕체를 사용하여 프랑스와 같이 문자가 강조된 디자인이다.

### 3.2.6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GLS:Graduated Licensing Scheme)를 시행하여 정식 면허 취득까지 최소 4년이 소요된다. 단계적으로 연습 면허와 임시면허를 취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연습 면허는 학습자(Learner)의 앞 글자 ‘L’을 사용하며 노란색 바탕에 문자는 검정색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연습 면허 운전자는 시험을 통해 임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면허는 임시(Provisional)의 ‘P’를 기호로 사용하며, P1 라이선스 표지는 하얀색 바탕에 빨간 P로 되어있으며 P1 라이선스를 12개월 동안 보유한 운전자는 다음 단계인 하얀 바탕에 녹색 P가 사용된 P2 표지를 사용한다. 표지 규격은 가로, 세로 15cm 정사각형으로 되어있고 차량의 전·후면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 3.2.7 캐나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GLP:Graduated Licensing Program)를 시행하여 임시면허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도록 한다. 임시면허 표지 문구는 학습자(Learner)와 초보자(Novice)의 앞 글자 ‘L’과 ‘N’을 사용하며, 가로 8.9cm, 세로 11.4cm 크기의 사각형 표지로 되어있다. 연습 면허 운전자는 빨간 바탕에 흰색의 ‘L’ 문자가 표지를 사용하며, 다음 단계인 초보운전자는 녹색 바탕에 흰색 ‘N’이 새겨진 표지를 사용한다. 운전하는 동안 차량 후면에 부착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각 나라별 초보운전 표지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나라별 초보운전 표지

[Table 3] Novice Driving Sign by Country

나라	국내	일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제정시기	1994-1999	1972	2010	2009	1994	1937	2000	1998
표지 이미지								
표지이름	-	와카바 마크	Kylegh's Law Decals	-	Disque A	L-Plate	L, P1, P2	L, N Sign
문자	초보운전	-	-	-	Apprenti	Learner	Learner, Provisional	Learner, Novice
기호	-	새싹	-	!	A	L	L, P	L, N
색상	Y/B/G	Y/G/BL	R	Y/BL	R	R	Y/BL, R, G	G, YR
형태								
크기(cm)	30x10	18.5x11.6	3.8x2.5	15x15	15x15	17.8x17.8	15x15	11.4x8.9
부착위치	뒷유리 좌측 하단	차량 전·후면	번호판 좌측 상단 모서리	뒷유리	차량 후면 좌측	차량 전·후면	차량 전·후면	차량 후면
부착기간	면허 취득 후 6개월	면허 취득 후 1년	21세 미만 운전자	면허 취득 후 2년	면허 취득 후 3년	임시 면허 기간 중	임시 면허 기간 중	임시 면허 기간 중

### 3.4 종합 분석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사례를 조사하고 사인 디자인의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가지 구성 요소별로 분류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규격화된 표지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문자는 주로 약자를 사용하고 선이 또렷한 고딕체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색채는 주로 적색과 녹색, 노란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형태는 단순하고 15cm 내외 크기의 표지를 사용하여 시야의 방해를 최소화했다. 이러한 공통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강조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자세한 분석을 위해 ‘문자 강조형’, ‘색상 강조형’, ‘형태 강조형’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4] 사례 분석  
[Table 4] Case Analysis

구분	문자			색채			형태			부착		
	요소 나라	단어 사용	약자 사용	기호 사용	1개	2개	3개	사각형	원형	기타	전면	후면
문자 강조	프랑스		●		●				●			●
	영국		●		●			●			●	●
	호주		●			●		●			●	●
색상 강조	국내	●					●	●				●
	미국				●			●			●	●
	러시아			●		●		●				●
	캐나다		●			●		●				●
형태 강조	일본						●			●	●	●

먼저 ‘문자 강조형’ 표지들은 단어의 약자를 기호화하고, 1개의 색상을 사용한다. 흰 바탕의 문자에만 색상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문자의 주목성을 높였다. 또한 문자는 볼드한 고딕체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기호를 전달한다. 따라서 프랑스, 영국, 호주의 P1, P2 표지가 문자 강조형으로 볼 수 있다.

‘색상 강조형’은 국내, 미국, 러시아, 캐나다의 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빨간 색상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표지 전체를 강조하였으며, 러시아, 캐나다, 호주의 L 표지는 명도 대비가 큰 2개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여 배경과 문자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반면, 국내 표지는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주목성은 높았지만 3가지 색상 모두 명도가 비슷하다 보니 테두리, 배경, 문자의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태 강조형’은 일본의 와카바 마크이다. 위에서 언급한 표지들은 단순한 도형으로 되어있으나, 일본의 경우 새색을 형상화한 표지로 문자 없이 형태 자체가 초보운전의 상징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주목성이 가장 높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인지가 가장 빠른 장점이 있다.

부착 위치는 ‘차량의 전·후면 둘 다 부착’ 과 ‘차량 후면에 부착’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통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중 국내, 미국, 프랑스는 ‘좌측에 부착’이라는 추가 규정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보운전을 상징할 수 있는 문자나 형태를 기호화하여 간결하고 즉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문자를 사용할 경우, 볼드한 고딕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혼잡한 도로 위 색상의 혼돈을 피하고자 색채의 사용은 최소화하여 강조하고 3개 이상의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색상을 사용할 때 명암 대비가 큰 색상을 사용하여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돈된 이미지를 위해 표지의 형태는 단순화하며, 사례를 바탕으로 크기는 15cm 내외로 규격화하여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부착 위치는 좌측에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해 차량의 좌측 후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 또한 추후 보행자 및 전방에서 마주치는 운전자들을 위해 차량 전면 부착도 고려하도록 한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운전자 표지의 디자인적 배경인 사인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사인디자인 구성 요소 중 문자, 색채, 형태 부착 4가지를 바탕으로 국내외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사례를 분석,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징적 유형을 바탕으로 추후 국내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인디자인의 개념적 이해를 기반으로 초보운전 표지를 디자인적 특성으로 분석하여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 측면에서 조사하지 못한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운전자 대상으로 규격화 표지에 관하여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향후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디자인을 논의하는 실질적 자료로 활용되어 안전한 교통 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Road Traffic Act", [www.law.go.kr](http://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accessed May 1, 2023).
- [2] S. I. Lee, "A Study on the Policy Plan for Reducing the Accident of Novice Driver", Research Center for Transportation, Climate, and Environment of Hyundai Insurance, Seoul, Korea, December 2016.
- [3] B. C. Ko, "Irritating, Not Consideration, 'Novice Driving Sign'...What about standardization", [www.hani.co.kr](http://www.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32.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32.html), (accessed May 1, 2023).
- [4] S. M. Joe, "Korea's beginner driver sticker. There's a problem", [www.ohmynews.com](http://www.ohmynews.com),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9768](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9768), (accessed May 1, 2023).
- [5] S. K. Jang, T. W. Kim, S. H. Park,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Integrated Driving Sticker Design", Jou

- rnal of Communication Design, vol. 70, January 2020, pp. 108-118, doi: 10.25111/jcd.2020.70.08.
- [6] S. L. Lee, "Overseas Cases and Implications of the Beginner Driving Sign Syste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eoul, Korea, Tech. Rep. TR-1911, September 2022.
- [7] H. S. Shin, "Does the "rude" beginner driving sticker disappear? National Assembly to standardize", [www.motorgraph.com](http://www.motorgraph.com),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59>, (accessed May 1, 2023).
- [8] C. W. Kim, K. O. Choi, J. S. Yun, "The Application Plan of "Sign Design" to Create the Harmonious City's Landscape -Focused on the Gwangyang Chilsung induc Street-",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vol. 32, January 2011, pp. 87-96, doi: 10.21326/ksdt.2011..32.008.
- [9] K. M. Kim, J. K. Lee, "A Study on the Color of Sign Design for Apartment Exterior's Pedestrian Space in Universal Desig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vol. 5, no. 1, March 2010, pp. 75-84, doi: 10.35216/kisd.2010.5.1.75.
- [10] W. C. Yang, "A Study on Components of Sign Design -Focused on Commercial Space (Apgujeo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16, no. 2, June 2010, pp. 324-333.
- [11] S. K. Min, Y. H. Lee, H. S. Pak, "Design Guidelines for Pictograms Representing Passengers in Car - Based on the Results from Responses to Semantic Categorization Task", *Journal of Digital Design*, vol. 14, no. 2, April 2014, pp. 305-314, doi: 10.17280/jdd.2014.14.2.029.
- [12] H. J. Park, "Information design and signatures", [www.jungle.co.kr](http://www.jungle.co.kr), <https://www.jungle.co.kr/magazine/3084>, (accessed May 1, 2023).